

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아녜스 곤히아 브약스히야입니다. 적어도 1937년까지는 그 이름으로 불렸지요. 여러분은 아마 저를 마더 테레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먹을 것, 기거할 곳,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났는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 근처 도시인 마케도니아 스코페라는 대도시에서 1910년 8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라자르(1907년 출생)라는 오빠와 아가(1904년 출생)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이 많고 신심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니콜과 드라나라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존경 받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그 덕분에 저희 가족도 부유했습니다. 1919년까지 저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비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홉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자수와 피륙 가게를 열어 집안을 부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저의 가족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지요. 어머니는 매일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리시움이라는 작은 가톨릭 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를 잘 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수녀가 되어 가톨릭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명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도로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갖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인도로 떠나기 전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행복한 생활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928년에 저의 오랜 인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중 저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틀카였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매일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묵주의 구슬 하나 하나는 하루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묵주 기도는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첫 하얀 구슬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유명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와 동료가 인도에 도착한 것은 1929년이었습니다. 길을 거닐어 보니 길 옆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펴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어 주었습

니다. 저는 그들이 기거할 곳을 찾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저와 벤티카는 몇 곳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오기 전보다 행복해졌습니다. 1937년에 저는 가톨릭 선교사 수녀로서의 마지막 서원을 했으며 리지우의 성 테레사의 이름을 따 이름을 테레사로 바꾸었습니다.

1948년에 극빈자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9년 멋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상금은 1백만 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빈곤층을 위해 전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저는 보살피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가진 돈을 모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990년 선교회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총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1996년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넘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8월에는 열병과 좌심실 정지로 고통을 받았고 11월 22일에는 흉부 통증과 호흡 문제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1997년 사망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침을 준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노벨 평화상 상금 전액을 바치며 도움을 베풀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